

지방 한계 극복한 암치료 명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선진화된 시스템과 탄탄한 연구 능력 등 실력 견비

국내 암환자의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다.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10년 사이 80% 정도 늘었다. 효과적인 암치료가 중요한 시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수술 등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암세포를 잘 떼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난치성 암 정복에 필요한 신약과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돼야 한다. 신체적 문제와 마음 관리를 함께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빨라진다. 이를 위해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은 지난 2013년 지상 7층·지하 3층 규모의 장기려기념암센터를 새로 신축했다. 확충된 외래 진료공간과 낮병동을 두고 고신대복음병원은 암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임학 병원장





"적정진료·최상의 치유경험 제공"

고신대복음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시한 뇌졸중,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뇌졸중치료 적정성평가는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1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 전통적인 암치료에만 강점이 있을 뿐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기 질환에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수술은 경험과 숙련도가 풍부한 의료진이 담당한다. 유방센터는 부산지역 명의로 이름을 나열했던 전창완 교수가 합류하여 날개를 달았다. 고신대복음병원 유방센터는 요즘 초진부터 빠른날짜에 수술 잡기가 환자들로 호황이다. 전통적인 강점을 보이는 위암, 대장암도 부산 지역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 간담체센터에는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의사

들을 다룬다는 교육방송 '명의'에 출연한 박은택, 신동훈 교수가 각각 내과와 외과에서 간담도 췌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기존 진료를 탈피하여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의 노력도 돋보인다. 낮병동 확장 개소가 그 중 하나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선진국형 '낮 병동'을 1동 1층에서 장기려기념암센터 5층으로 이전하며 확장 개소했다. 낮병동은 입원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입원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병원관계자는 "기존에는 6~12시간 정도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1일 이상 입원을 해야 했지만, 외래 진료를 받은 날에 치료를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기존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병동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고신대복음병원은 감염병 예방에도 지역에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

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6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오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안을 제한하는 대신 간호사가 간병서비스까지 맡아하는 시스템이다. 고신대복음병원측은 “간호 인력의 업무가 늘어났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몸·마음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

암환자는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통증·스트레스·불면증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는다. 이를 위해 고신대복음병원은 원내에서 각 진료과 별로 준비된 무료건강강좌가 환자에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암을 정복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암치료 후 식습관 관리법, 통증 관리법, 암 환자에게 잘 생기는 질환 예방·관리법 등이 있다. 또한 매월 개최되는 음악회는 전문 부산국립국악

원 공연부터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지역을 대표한 유방암 환우회 ‘나눔애사랑’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연진으로 구성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있다.

"최적의 치료로 암 극복 동반자 될 것"

“고신대복음병원은 한강이남 최고의 암병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짧은 진료 시간, 오랜 대기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학 병원장은 고신대복음병원 의료진을 동반자라고 표현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고 약사, 영양사도 암 치료는 물론 치료 후 생활 관리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다. 임 병원장은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법을 통해 환자가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